스텝 없는 춤

(갈2:1~11~14)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스텝 없는 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 어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적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무효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바울의 변호 속에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아빠와 함께 춤을'이었어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스텝 없는 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빠의 품에 대롱대롱 안겨서 추는 춤이라고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그렇게 추는 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채로 아빠의 춤동작에 얹혀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므로 발이 땅에서 떨어져있는 스텝 없는 춤이라고 한다면, 불신앙인이나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데도 실제로는 아빠 품에서 떨어져서 하는 모든 행동은 스텝을 스스로 밟아가면서 추는 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동이 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유적 전제 아래서 오늘 본문말씀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행동은 곧 춤이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집들이 집중해서 몇 채가 몰려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가 있고 건너편은 허허벌판 밭이었어요.
그런데 밭쪽이 동교동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라서 동교동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밭에 들어서기 직전에 커다란 미군 군용천막을 치고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족이죠.
그 가족 중에 자녀들이 오빠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 딸이 저희 집에 와서 빨래방망이를 빌려갔습니다.
그 다음다음날쯤인가 신문에 택시강도사건이 보도되었는데, 그 빨래방망이를 빌려간 여자아이의 오빠가 청년이었는데 그 오빠가 택시강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택시강도에 사용된 흉기가 뭐냐 하면 바로 저희 집에서 빌려간 빨래방망이였습니다.
아,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었지요.
그 옛날 서울 변두리에 몰려 살던 동네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그때 그 사건을 두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고두고 저희 형제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택시 아저씨를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얻은 돈이 몇 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몇 푼 얻으려고 강도짓을 함으로써 인생 자체를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 정말 사소한 이익을 얻겠다고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게 될 말이냐, 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린 마음에도 무척이나 공감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스텝이에요, 스텝.
우리가 왜 행동합니까? 행동은 스텝이에요, one step, two step, step by step.
근데 이 스텝이 왜 나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 좋아하고 사랑해서 들여놓은 게 있습니다.
마음 안으로 들여놓으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 안에 들여놓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동생에게 빨래방망이를 빌려오게 했어요.
여동생은 오빠가 무엇에 쓸려고 그러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은 적당한 곳을 택해서 택시를 잡는다, 으슥한 곳으로 가게 해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두들겨 팬다.
그런데 원치 않았던 다섯 번째 스텝에서는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거나 소유하거나 갖고 싶어 하면서 스텝을 밟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이 춤이라고 한다면, 스텝을 밟는 춤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인가를 좋아서 마음에 담게 될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마음속에 담았다 그러면, 자식에게 일어나는 성공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마는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좋아해서 받아들임으로써 밟게 되는 모든 스텝, 모든 춤, 이게 다 악입니다.
그리고 모두다 율법주의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예외 없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돈을 많이 소유하고 싶다고 내 마음에 돈을 집어넣었을 경우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성향이에요.
어떤 성향입니까? 내가 행동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쟁취한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의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스텝을 밟아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춤이라고 하는 게 스텝이 기본 아닙니까?
스텝이 꼬이거나 스텝이 어설프면 물 흐르듯이 이어져가는 춤사위가 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춤, 신앙인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텝을 밟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 딸처럼 대롱대롱 매달림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스텝을 밟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못 믿는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스텝을 밟습니다, 자기가 행동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을 해나간다는 것, 이게 춤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대신에 이 땅에 좋아하는 것들을 들여보냈을 때 자기 자신이

스텝을 밟게 되는 춤사위가 나오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율법주의적 성향을 띠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를 나무랐다'
그러니까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자기가 잘못된 것은 나무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정말 참다운 사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공생애 때 뵈었느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베드로의 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위선에서 곧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방인 교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로부터 보내어진 사람들이 당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식사 중에 벌떡 일어나 슬그머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나바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도도 따라서 같이 나가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어떻게 그런 위선을 떨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의 이야기가 전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사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반갑게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 정말 베드로 사도의 언급되지 않고 있던 그 삶의 아주 작은 편린이 드러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작은 베드로의 삶의 단면이 우리에게 보여 지는데, 그만 베드로가 복음적 입장에서 벗어난 율법주의적 경향을 띠는 위선의 순간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아, 굉장한 분 아닙니까?
보세요! 3000명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마음이 뒤집혀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5000명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벌떡 일으킵니다.
사도행전에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이게 지금 다 아빠와 함께 춤을 춤으로써 나타난 일들입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빠가 베드로를 가슴에 안고 움직일 때마다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이 웬 말입니까?
이 위선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베드로 자신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1차 공회 때 이방인들을 율법과 할례와 같은 유대적 전통적 규정들을 부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걸 직접 목도하였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규정을 부담 지우지 말자고 결정했을 때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3천 명 5천 명을 회개시키던 당당함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유대 땅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 눈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뜨일까봐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때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왜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합니까?
레위기 11장에 정결법이 나와 있는데, 그 정결법에 근거해서 발전시킨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로부터 부정한 기운이 오니까.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는 이유도,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사니까 이방의 기운들이 몸에 붙어있고 손에 붙어있어서 그것을 씻어낸다는 뜻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다 자유 하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율법주의적 습관의 잔재가 완전히 제거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는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낸다고 하면, 팔레스틴 땅에서의 베드로의 위치, 베드로가 갖는 이미지, 당시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위치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의 위치에 서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미자가 손상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아빠가 들어와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건 정확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가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십자가를 잊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있으면 여지없이 땅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돼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3천 명 5천 명을 한 번의 설교로 회개시킨 자, 죽은 자를 살린 사람, 앉은뱅이를 일으키던 사람, 온갖 능력의 본산으로 여겨졌던 그 베드로도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잊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신에 유대 땅에서 자기에 대해서 갖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 비쳐지는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스텝을 밟은 거예요.
베드로의 움직임은 스텝 없는 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텝을 밟으시면서 자기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있어야 되는 건데, 자신이 스텝을 밟아버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사도바울이 놓치지 않고 질책을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 성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동을 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좋아하고 사랑해서 갖고 있게 되는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그리고 행동해라!
이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룬다, 행동을 대가로 지불한다.
행동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든 노력을 지불하든 시간을 지불하든 무엇이든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행동을 통해서 얻는 거지, 행동 안 하고 얻나?'
여러분, 분명히 해둡시다.
우리의 행동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목적 없는 행동을 하라는 말이냐?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충동적인 행동 말고는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 아빠로 우리 마음이 충족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바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행동에 목적도 없는 겁니다.
목적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나타나요,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는 그 품에 안겨서 움직이다보면 내 행동이 되지만, 그 내 행동이라는 건 내게 목적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 생겨납니까?
내 마음 안에 이 땅에서 뭔가 좋아하는 것이 생겨서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렸을 때.

그러니까 어저께 한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밥을 지어요, 근데 가정부가 밥을 지으면 목적 있는 행동이고 스텝을 밟는 춤입니다.
돈을 벌려는 거예요, 돈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마음속에 들어온 돈을 현실로 쥐기 위해서 가정부가 되는 스텝을 밟았고, 가정부가 돼서 밥을 짓는 스텝을 밟는 겁니다.
스텝 있는 춤을 추는 거고, 목적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짓습니다, 그때는 마음 안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 안에 가족이 들어와서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들이 먹고 살게 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밥을 짓습니다.
이것도 목적 있는 행동입니다, 스텝을 밟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 좋아서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밥 짓는 행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스텝의 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딸이 밥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딸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늘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번제’는 제가 만들어놓은 특별한 용어가 아닙니다, 상번제를 바꾼 이름이에요.
오늘의 번제를 십자가를 통해 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아빠 속에 마음이 들어가 아빠 품에 안겨버립니다.
이때 밥 짓는 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먹여 살리시느라고 짓는 하나님의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밥 짓는 행동을 하시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에게 안겨서 내 손으로 밥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에요, 돈이 들어있으면 돈 벌러 가는 것이고 가족이 들어있으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스텝 없는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율법주의적 성향이 모든 행동에 나타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외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스텝을 밟게 되는 모든 것이 외식이고 악입니다.
스텝 없는 춤을 추심으로써 완전한 외식으로부터의 자유, 위선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고, 덩실덩실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마음에 들여놓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스텝 없는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